

永川 菁堤碑의 發見

鄭 永 鎬

- 一、發見과 調査의 經緯
- 二、碑의 形態
- 三、銘文의 判讀

一、發見과 調査의 經緯

昨年(一九六八年)十二月下旬에 新羅三山學術調査團(한국일보社 主管團長 金岸基博士)에 依하여 慶尙北道 永川郡 琴湖面 道南洞(山七番地)에서 石碑 二座가 發見調査되었다.

新羅三山の 하나가 位置한 骨火의 舊址를 찾기 위하여 十二月十七日부터 二十四日까지 永川地區 踏査에 나섰던 同調査團은 邑內에서 몇 有志와 만나 옛 骨火小國에 關한 이야기를 듣던중 盧漢容氏로부터 「정못에 唐碑가 있다고 한다。」라는 傳聞에 注意하여 이곳의 邑誌인 永陽誌(一九三五年 五月刊)를 살펴본바 「唐貞觀碑」가 남아 있다는 記錄이 있어 더욱 注目하여 곧 現地로 달려갔던 것이다.

永川邑內에서 南쪽으로 約六km 되는 琴湖江 東便에 俗稱 淸못(菁池)이라는 큰 貯水池가 있어 지금도 數十萬坪되는 이곳 넓은 平野의 水利를 맡고 있는데 이 碑石들은 바로 이 菁池의 堤防을 쌓은 緣記로서 「淸못」 북쪽 四〇m 되는 골짜기의 비탈에 나란히 서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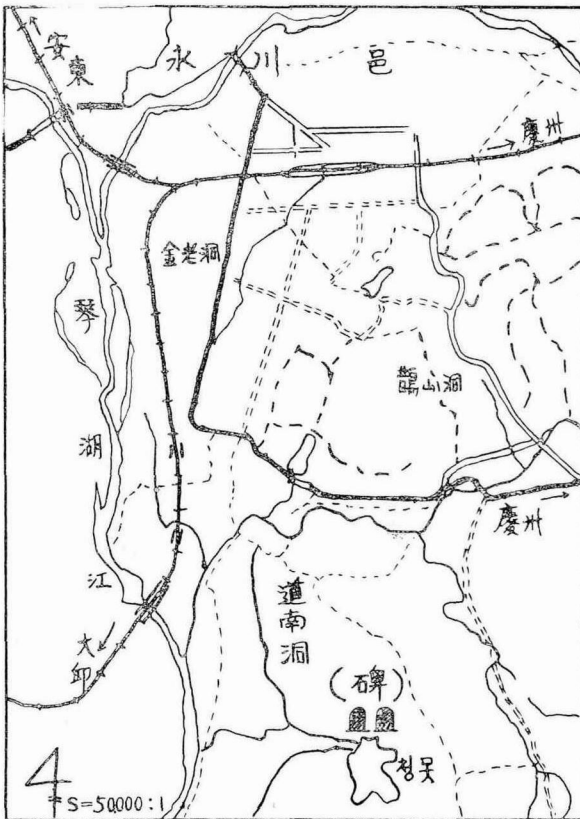


圖 1. 永川 菁堤碑의 位置圖

다. 그러므로 이 「淸못」은 隣近에서는 물론이요 멀리 大邱에서 까지도 남서편들이 몰려들어 오래전부터 널리 잘 알려져 있었으며 아울러 이 碑石도 洞民들은 存在함을 알고 있었는 데 그 價値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一行이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에도 洞里의 古老가 「돌비석이 있는데 오래된 것이라고 옛 어른들이 말했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碑石의 위치를 가르켜 주어서 初行이었지만 쉽게 現場을 찾을 수 있었다. 처음 現品을 對한것은 十九日 午後였는데 調査團의 先發隊로 現地에 온 洪思俊, 李基白, 鄭永鎬 三委員은 이날 兩碑石의 位置와 形態 그리고 豎立年代 및 緣由等을 把握하고 本格的인 調査는 全委員이 함께 할 것으로 原則을 세웠었다. 이때 처음 把握한 內容은 菁堤에서 北쪽을 바라보아 右側으로 古碑(菁堤碑)가 있고 左側 五m 相距에 또 하나의 碑石(菁堤重立碑)이 있는바 古碑의 南面 序頭에 「貞元十四年戊寅四月」을

비롯 百餘字의 銘文이 있고 그裏面(北面)에도 많은 陰刻文이 있으며 또 하나의 碑石은 「康熙二十七年戊辰九月」에 세운것임을 알수 있었다. 二十日 黃壽永, 秦弘燮, 金英夏委員을 비롯 芮庸海, 尹容鎮, 文明大諸氏와 合勢하여 다음날인 二十一日에는 一行 全員이 現地에 이르러 兩 碑石의 調査를 進行 하였는데 重立碑는 그 建立年代가 오래된 것이 아니라서 쉽게 끝났으나 古碑는 前後面に 青苔가 두껍게 끼었기 때문에 그 除去作業부터가 어려운 일이었다.

民家에서 끊인 물로 이끼를 벗기고 拓本함으로써 많은 銘文을 判讀하였는바 「貞元十四年」銘의 面은 表面이 아니고 裏面으로서 이에 앞서 北面에 刻字하여 오래前 벌써 碑石으로 竝立되었음을 알수 있었다. 卽 이 碑石은 兩面碑로 表面은 序頭に 「丙辰年二月八日」이라 始作하여 百數十字의 銘文이 있고 裏面에는 「貞元十四年」銘의 碑文이 陰刻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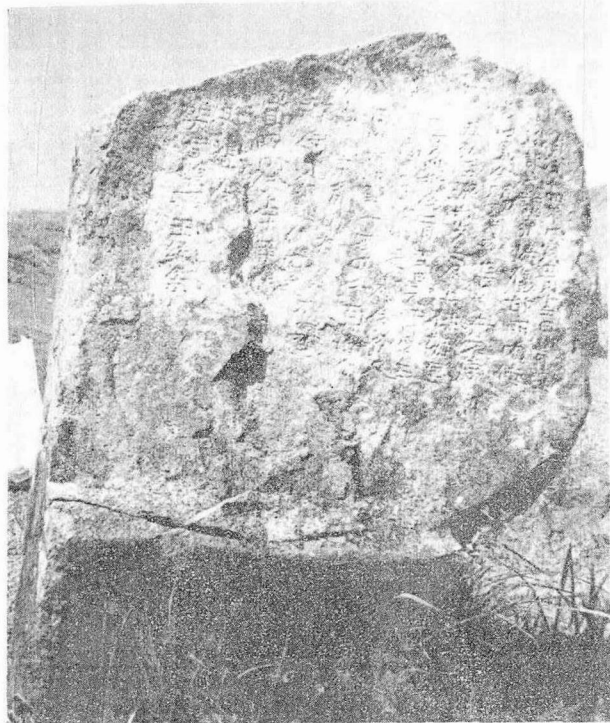


圖 2. 永川 菁堤碑(裏面 貞元十四年銘)

그러나 現在의 狀態와 碑文 內容으로 보아 表·裏銘文이다 「菁堤」에 關係된 것이므로 이 碑石의 碑名은 「永川 菁堤碑」라 할것을 全委員이 合意하였다.

數枚를 拓本하고 韓字式 檢討하여 裏面은 거의 다 判讀되었으나 表面은 워낙이 오래 된것이고 또 이끼가 잘 벗겨지지 않아 判讀이 어려움으로 次後 解氷期를 擇하여 再調査할것을 다짐하고 이날은 우선 첫 調査를 끝내었다.

이곳의 再調査는 지난 五月六日에 實施하였다. 마침 同調査團의 淸道 地區調査가 五月一日부터 始作되었는데 이때 再調査의 機會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金庠基團長과 秦弘燮, 李基白, 金英夏, 鄭永鎬委員을 비롯 石宙善, 李康七, 許善道, 尹容鎮, 金和英諸氏 一行은 아침부터 하루종일 現地에서 調査를 進行하여 지난번 겨울에 못벗겼던 이끼를 完全히 除去하고 裏面은 全文을 完讀하였으며 表面도 現狀態에서는 精讀한셈으로서 調査를 끝냈다.

二、碑의 形態

碑石의 形態를 살펴보면, 菁堤碑는 花崗岩의 自然形을 그대로 利用한 것이다. 그러므로 上部는 平薄하나 下部에 이르면서 重厚해지고 側面도 治石의 痕跡이 없으며 下端은 石塊 그대로 埋沒되어 있다. 처음에 세울 때는 表面만 약간 平平하게 다듬어(拙品이나) 「丙辰年……」라 刻字하여서 그裏面은 屈曲等 自然 그대로인데 그후 裏面의 「貞元十四年……」銘은 그面을 利用하였으므로 表面보다 지칠고 또 傾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碑石의 石質은 沙土가 없이 堅固하여서 刻字에 磨滅이 적어 裏面은 거의 全文을 육안으로도 判讀할 수 있다. 이렇듯 蓋石도 없이 自然 그대로의 形態를 利用하여 竝立한 石碑의 類例는 眞興大王의 昌寧拓境碑나 眞平王時의 慶州南山新城碑 등에서 볼수 있는 바로 그 刻字의 手法과 形態도 흡사한데 이러한 점은 菁堤碑 初建(表面의 銘文)年代의 推定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圖 3. 菁堤重立碑

實測値는(cm) : 現全高一三〇、全幅九三·五、全厚四五、表面高一〇、幅七七、字徑四·六、裏面高九八、幅六六、字徑四·五·五。側面高七五、上端厚一五、中間部厚二二、下厚三三。現在の向은正南에서東一五度。

菁堤重立碑는 表面만을 平平하게 治石하여 銘文을 陰刻하였으며 裏面은 거치른 自然面에 數行 人名을 刻字한 部分만을 다듬었다。역시 沙質이 적은 堅固한 花崗岩石으로 造成된 石碑로서 蓋石은 없으나 上邊 左右의 귀를 접어 平頭狀을 이루고 있는바 이러한 形態는 高麗時代 中葉부터 朝鮮時代에 까지 흔히 流行되었던 것이다。

實測値는(cm) : 現全高一〇七、幅七七、厚一五、總高一三三、字徑五·五、題字徑六·三、裏面字徑四·七。向은 正南에서 東으로一五度。現在 碑身이 앞으로 一五度쯤 기울어져 있다。



圖 4. 永川 菁堤碑 表面(丙辰銘)

三、碑文의 判讀

調査團一行이 判讀한 碑의 銘文은 다음과 같다。碑銘에 대한 研究는 따로 李基白教授의 發表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現在 判讀된 結果만을 실어 두기로 한다。

丙辰名

貞元十四年銘

丙辰年二月八日△△△大

貞元十四年戊寅四月十三日菁堤

塢△△△△鄧九十二△△

治記之謂沘堤傷故所內使

廣△△△△上三將作人

以見令賜矣玠長卅五步岸

七千人割二百八十方

立弘至深六步三尺上排掘里

使人△△△△大舍第

十二步此始爲二月十二日元四月十三

△△小△第△利大鳥第

日此間中了治內之都合斧尺

△△小鳥△第小鳥一△

百卅六法契一万四千百冊人

△△作尔利乃利△丁△

此中典大ホ角助役切火押梁二

使△人只玠巴伊卽刀

郡各△人尔起使內之

衆△△只△△干支△尔利

節所內使上千年衆

史須大舍

加大守須梁玉純彙

菁堤重立碑

永之南有菁堤堤之址有碑焉其文有曰唐貞元十四年戊寅自上委遣兩內史用役夫一萬四千八百餘人築堤立石以記顛末云蓋此堤灌漑三百餘石至今蒙利而往在順治癸巳碑石爲人所折埋沒塵埃人莫不惜其古跡之不傳今茲改立石以識之噫後之人因是碑而思所以不廢是堤則碑之於堤不能無助焉
康熙二十七年戊辰九月日

(碑陰)

碑首唱

方守悅

崔一奉

林彥良

監考朴生



圖 5. 菁堤碑의 調査

永川 菁堤碑

貞元銘의 考察

李 基 白

一、序 言

二、貞元十四年銘의 內容

三、新羅의 水利事業과 菁堤의 修治

四、貞元銘에 나타난 新羅의 中央集權體制와 地方豪族

五、貞元銘에 나타난 新羅의 力役體制

六、結 語

一、序 言

다른 모든 時代에도 그러하긴 하지만 특히 史料가 적은 古代史의 研究에 있어서 새로운 資料의 出現이 갖는 意義는 큰 것이다. 體系 있게 叙述된 古代史 資料들, 예컨대 高句麗의 留記나 新集, 百濟의 書記, 또 新羅의 國史 등의 出現이 거의 可望 없는 듯이 보이는 現在에 있어서, 우리가 期待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金石文인 것이다. 그리고 이 方面에서 近年에 뜻밖의 收穫들이 있었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들 여러 新出 資料들 중에서 筆者가 적지 않은 關心을 가져온 것은 南山新城碑와 大邱塢作碑였다. ① 그것은 이들이 모두 新羅社會의 基層을 이루고 있는 村落居住民의 生活相을 보여주는 記錄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들이들과 共通되는 여러 점을 지니고 있는 新金 石文 資料에 접하게 된 것이다.